

이코노 & 비즈 피플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노후대비 최고 재테크는 일하는 것”

퇴직후 매달 50만원 고정수입이 2억원 자산 가치 부동산 편중 위험...채권·연금 등 금융자산 늘려야



“노후 대비가 안돼 있더라도 체면을 버리고 퇴직 후에 재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재테크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9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 포럼을 위해 광주를 찾은 강창희(65) 미래에셋 부회장이 강조한 노후대비 재테크는 바로 ‘일’이었다.
60세까지 버티면 능력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년이 빠른 금융계에서 65세라는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 부회장의 노후대비도 역시 80세까지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 부회장은 강의가 없는 주말에 각종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강의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 부회장은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고생해서 경제기반을 닦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를 했다”며 “매달 50만원을 고정적으로 버는 일이 2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령 여유가 있어 자산관리가 잘 된 사람이라도 노후는 고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일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강 부회장은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일자리를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구(NPO)를 많이 늘려 노년 인구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수백만개의 NPO가 있고 일본에서는 퇴직자의 70%가 NPO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강 부회장은 설명했다.
전국을 돌며 연간 300여 차례의 재테크 강의

를 하고 있는 투자교육 전문가 강 부회장은 자신의 자산관리에 대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 연금에 가입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5대 5로 맞추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아직은 서울 집값이 비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금융자산의 경우 50%는 안정적인 채권과 CMA 등에, 나머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주식과 펀드로 구성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이 강조한 재테크는 부동산에 치중하지 말고 금융자산을 늘려야 하는 것. 현재 집값 약세가 장기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소득·연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이 노후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 부회장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며 “자녀 교육에 있어 중심을 잡고 교육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 부회장은 “10년 전보다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며 “나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강연 내용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보람”이라고 말했다.
전주 출신인 강 부회장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와 일본 도시샤대 대학원 석학연구과를 수료(상학석사)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 현대투자신탁운용 대표,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대표를 거쳐 현재 미래에셋그룹 부회장 겸 퇴직 연금연구소소장·투자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글=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상콤미소 비결은 ‘오렌지’ 싹펴보고 있다.

작황부진으로 올해 감귤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상품으로 오렌지를 찾는 소비자들 늘고 있다. 12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소비자들 오렌지를 싹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저소득층 돈 벌어 먹는데로 샌다

수입의 21% 지출...엔겔계수 6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 가구의 엔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겔계수는 소비지출 중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엔겔계수는 20.7%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05년에도 1분위의 엔겔계수는 20.7%였다.
전체 가구의 엔겔계수 역시 작년 14.18%로 2005년(14.61%) 이후 최고치다.
연도별 1분위 엔겔계수는 2006년 20.08%, 2007년 20.16%, 2008년 20.11%, 2009년 19.98%, 2010년 20.4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소득계층별 엔겔계수는 하

위 20~40% 계층인 2분위가 15.76%, 하위 40~60%인 3분위가 14.40%, 상위 20~40%인 4분위가 13.16%, 상위 20%인 5분위가 11.83%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1분위의 엔겔계수가 5분위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은 저소득층의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의 절대규모가 작아서 생활물가가 오르면 엔겔계수도 큰 폭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車 등록대수 3년만에 줄어

전통시장,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계속되는 불황으로 자동차 총 등록 대수가 3년 만에 감소했다. 특히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개인용 트럭 수가 줄었다.
12일 한국은행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1천843만7373대를 기록했다. 전달 1843만7646대에 비해 273대 줄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12월 이후 36개월 만이다. 총 등록 대수가 감소한 이유는 화물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승용차는 늘어난 반면에 화물차는 322만6421대로 전달보다

1610대 줄었다.
특히 자가용 화물차가 1997대 줄었다. 자가용 화물차란 전체 화물차에서 택배 등 영업용을 제외한 것이다. 즉 개인용을 뜻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에서는 1t 이하 카고형이 916대 줄었고 1t 이하 밴형이 2321대 줄어들었다. 1t 이하 카고형은 흔히 볼 수 있는 포터나 봉고 트럭이다.
개인용 포터·봉고 트럭의 감소는 그만큼 골목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계속되는 불황에 자영업자들이 운전대에서 손을 뗀 것이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종전 20%)로 확대할 바 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

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민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

부동산의 모든것 ‘집사람’에 물어봐

중개·금융·법무·이사·집수리 등 토탈 서비스

부동산 중개시장의 신개념 서비스 (주) 집사람(jibssaram.com)이 12일 오픈, 지역 부동산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집사람’은 온·오프라인 통합, 부동산 토탈 서비스로 부동산 중개에서부터 금융, 법무, 이사, 인테리어, 생활용품, 집수리관리까지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사람 전담에이전트인 지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주거관리,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

하며 이사, 생활정보, 집수리 등의 문제까지 관리 하게 된다.
또한 지역(동)별로 전담에이전트(공인중개사)를 두어 현장의 물건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변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맞춰 반영하는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 지역 물건 구매 시 물건지 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역의 집사람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경제적 부담

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매물을 실시간영상으로 중개해주는 ‘하우스 뷰’와 가상현실로 360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파노라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집사람 이용호 대표는 “중개 수수료의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공정한 거래를 약속하며, 고객 이용에 따라 공동구매의 비용절감 효과와 제휴서비스를 통한 광고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공인중개사 수익을 높이고, 고객 부담은 줄여,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Advertisement for Nakji Hanmadyang restauran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each with people, a menu list including Nakji Jeongol, Hwumchim, and various soups, and contact information: 062-375-3700. Text includes '원조 남도 낙지요리의 명소! 원조 낙지한마당!' and '남다른 정성과 서비스 정신, 맛의 철학이 있습니다.'